

응급처치 가이드(7) : 피부를 통한 중독

부식성 물질에 의한 중독

- 부식성 화학물질(산, 알칼리, 세척제, 용제 등)이 피부, 점막, 눈 등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손상을 입히는 중독을 말한다.
- 손상의 기전과 정도는 다양하지만 점막손상과 영구적 반흔이라는 결과는 모든 물질이 동일하다.
 - 알칼리는 일반적으로 산보다 더 나쁜데, 그 이유는 빠르고 계속적으로 심부조직으로 침투해 들어가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하여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위별 응급처치 방법

눈의 화학화상 응급처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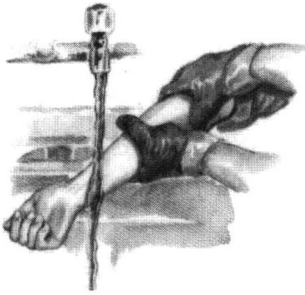
증 상	처 치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의 심한 통증 ■ 다친 눈을 뜨기 힘들다. ■ 눈 안이나 주변이 벌겋게 붓는다. ■ 눈물이 많이 흐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에 있는 화학물질을 희석시킨다. ■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눈을 부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한다)

1. 다친 눈을 1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대고 눈꺼풀 양쪽을 모두 잘 씻는다. 안구세척기나 유리잔으로 물을 부어도 된다.
2. 눈이 통증경련으로 꼭 닫혀 있으면 부드럽지만 강하게 눈을 연다. 오염된 물이 반대쪽 눈에 튀지 않도록 한다.
3. 소독안대나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거즈로 눈을 가린다.
4.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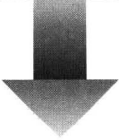
피부의 화학화상 응급처치 방법

증 상	처 치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하게 쏘는 통증 ■ 처음에는 거의 흔적이 없다가 벌개지고 착색이 되며 물집이 잡히고 벗겨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이 더 손상을 주기전에 확인하여 제거한다. ■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해독제를 찾느라고 처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1. 손상부위를 물로 씻어내 화학물질을 희석시킨다. 열화상의 경우보다 오래 씻어낸다.
2. 물을 붓는 동안 오염된 옷가지를 제거한다.
구조자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장갑을 낀다.
3. 맥박과 호흡을 관찰하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

응급환자 발생시



- *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 * 응급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 *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연락체계를 계속 유지한다.
- * 사업장 응급상황 사전대비 방법
 - 사전에 응급물품을 갖추고
 -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여
 - 응급처치방법을 익혀 둔다.